

“ 지도자의 위선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위선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자기 전부의 속생각을 다 쏟아 놓는다면 그런 추한 인물과 교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장 비 위선적이어야 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실은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나다니엘은 없는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이는 참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셨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니엘을 주님은 보셨고 그의 정직한 경건성을 보신 것이다. 오늘 날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위선적이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 홀드 니버는 “특권층의 도덕적 특징은 위선이다” 라고 했다.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부당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더 위선적이 되는 것이다. 자기들도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희생적으로 노력했고 오늘의 사회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3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나 정치인으로 재선 또는 3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 대가임을 주장한다. 명분 없는 특권은 사회가 용납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도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가능한 모든 이론과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도덕적 회칠을 하여 위선자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선다. 정치적, 경제적 특권 분야 뿐 아니라 거기에 도덕군 자까지 됴므로 가장 위선자로 가면울 쓴 채 나타나 거룩한 소리만 내뱉는 철면피 같은 지도자가 된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나다니엘같은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한 지도자가 한국엔 없는 것인가?

사람은 의모를 보거나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의 일곱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다. 그는 백성들의 투표나 천거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분명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례들은 역사상 열마든지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는 이방 사람 메소포타미아인으로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다. 애굽 천지를 다스릴 국무총리를 세울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셨다.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 나간 목동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불러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 복음의 대사도로 삼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인간이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는 방법으로 부름 받고 세움 받은 지도자들 중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다가 도중 차찬 이들도 부지기수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저 유명한 자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명한 이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자랑하는 지도자는 사울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윗같이 될 것이다.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후 7년 반이나 기다렸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 겸손히 준비한 후 후대에 잇을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 위선자의 결국은 비열한 위선자로 낙인 찍혀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아무리 위선자가 득세하고 득실거린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정직이 승리한다는 우리의 이상과 신리는 잃지 말아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1408호] 2014년 4월 12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Pastor
Hymn	38..... Congregation
*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5:1-15 Pastor
Sermon	"The Healing at Bethesda on the Sabbath" Pastor
* Hymn	370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사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신자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훈쿠이 땅, 땅,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벨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비 이경업 알로롱 비시 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찬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쑤 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배려, 사랑의 다른 이름”

■ 요 5:1~10

얼마전에 있었던 인공지능 바둑기고 알파고와 인간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5차례 바둑대국은 전 세계에 비상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대로 4승1패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알파고를 만들어낸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알파고는 이기도록만 세팅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기계와는 달라야 하는 결정적인 점은 질 수도 있고 저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질줄 모르고, 저 줄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기계입니다. 그러나 안길 수 있지만 저울 줄도 알고, 양보할 줄 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파고는 질 수는 있지만 저 주지는 못합니다.

1. 베테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베테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오서 예루살렘의 여러 성문 가운데 양의 문 옆에 있는 베테스다 연못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 시각장애자, 다리 저는 사람, 할기마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테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 중, 예수님께서 베테스다 못가로 가신 것과 안식일에 병든 자를 낫게 하신 두 가지 사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테스다 연못가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예민한 사람들은 가려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오서는 그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곳에 가신 것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풍습대로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비난과 정죄와 박해를 받을 것이 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법에 개의치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테스다 연못가에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다가 깨끗이 나아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감격하거나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자리를 들고 감은 울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온 병자에 대한 배려나, 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베테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병자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병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38년된 병자는 그들 중 가장 불리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패배와 좌절을 겪으면서 무려38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도 다른 병자들에 대한 배려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병자들끼리 서로 순번을 정하여 순서대로 물속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배려가 있었다라면 38년짜이나 물속에 못 들어감으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연장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배려는 타인을 생각하는 사고하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며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배려는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 아름다운 삶은 천국시민의 자세

남편 없이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동네 마트에 가서 분유를 고른 후 계산대에 섰는데 분유의 가격이 16,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만 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마트 주인은 진열대 위에 분유통을 올려놓다가 일부터 분유통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 여기 조금 찌그러진 분유가 있는데 반값에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기 엄마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8천원을 분유를 얻었고 마트 주인은 8천원으로 천국시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트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돕되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배려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질 것입니다

맺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8).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 때문에 비인간화 된 사람들을 다시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받아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사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배려입니다.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시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 합니다.

지난 주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은퇴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준권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6-7 인 도 자
 찬 송 43(57) 다 함 께
 기 도 감형상 집사
 성 경 계 1:4-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 알파와 오메가(Alpha and Omega) " ... 설 교 자
 * 찬 송 20(4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김해중 권사
 성 경 요 6: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충만한 은혜”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연박수강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요 5:8-9)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제1권사회 월례회(직장만 포함) / 30일(주) 3부 예배 후 202호
- 제2권사회 기도회 및 월례회 / 30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 매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이종윤 원로목사의 강해설교가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기대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 금주 다락방리더 훈련과 다락방 모임은 공휴일인 관계로 쉽니다.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예배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5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최용준(한의사), 오병호(피부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1. 광선희 목사 소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M.Div.)
 프린스턴신학교 조직신학 석사(Th.M.)
 풀러신학대학교 선교신학 박사(D.Miss.)
 단국대학교 명예문학박사
 인천제일교회 담임목사 역임
 승의여전 학장 역임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역임
 현, 소망교회 원로목사
 현, 연변과학기술대학 이사장
 현, 실로암 안과병원 이사장
 현, 평양과학기술대학 이사장
 현, 한국군선교연합회 이사장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03명	340명	297명	1,540명	159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4/2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4월23일	전주이월	184,261,296		
"	헌 금	24,531,270		십일조 :15,831,000 주일 :4,827,170 감사 :1,757,000 교회학교 :241,100 기타 :1,875,000
"	비품		120,000	책상 외
"	특별예배비		1,170,000	안내위원복 제작비 지원 외
"	말씀봉사비		21,540,000	교역자 사례
"	교회학교운영비		879,500	중,고등부 생일케익 외
"	구 제 비		600,000	성도 구제
"	급 여		39,624,000	직원 급여
"	출 판 비		270,000	순례자 발행
"	인 건 비		10,689,730	경비, 청소집사 용역비
"	사무용품비		83,860	마분지 외
"	도서인쇄비		20,000	기독교보료
"	소모품비		260,000	1층 EPS실 PC 네트워크 허브 수리
"	통신비		891,210	교회 전화료 외
"	차량유지비		150,600	8190차량 주유
"	복리후생비		116,760	임성국 기사 식대 외
"	수도광열비		611,820	교회 상하수도료 외
"	환경유지비		200,200	4월 세정제 교체
"	식당운영비		240,000	전체성도 김치
	합 계	208,792,566	77,467,680	잔 액 \131,324,886

카우보이와 목자

커다란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권총을 옆구리에 찬 카우보이는 풍진을 날리며 황야를 달리는 포장마차와 함께 서부황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카우보이는 가족을 다룬다는 뜻에서 비슷한 사역자들이지만 카우보이를 목자라고 부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엄하고 비탈진 골짜기로 쫓아가서 상처받고 쓰러진 양을 구원해 내지만 카우보이는 양들의 머릿수만 헤아리고 사정이야 어떻든 제 기분 따라 이리 물고 저리 치는 일을 한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진 카우보이 아닌 목자들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